

삼성SDI, 2차전지 매출 2조원 넘어

PDP 매출도 사상 최대 ... CRT 브라운관 부진에 영업이익은 19% 감소

삼성SDI가 2009년 2차전지와 PDP(Plasma Display Panel)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호조를 보였으나 CRT(브라운관) 사업 부진으로 전체 영업이익은 20% 가까이 감소했다.

삼성SDI는 2009년 연결기준 매출액 4조9504억원, 영업이익 1072억원을 기록했다고 1월26일 공시했다.

매출은 전년대비 6.6%, 영업이익은 19.4% 줄어든 것이다.

삼성SDI 관계자는 “CRT 사업부문의 매출 감소와 원/달러 환율 하락이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의 주 원인”이라고 설명했다.

4/4분기에는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4.5% 줄어든 1조3934억원, 영업이익은 8.8% 감소한 467억원이었다.

주력인 전지사업은 세계 리튬이온전지 시장이 5% 가량 역성장했지만 삼성SDI의 매출은 11% 늘어난 2조160억원으로, 시장점유율이 전년보다 4%p 상승한 21%를 기록했다.

삼성전자와 통합경영이 이루어진 PDP 사업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풀HD와 50인치 이상 대형 제품 판매비중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5% 늘어난 2조1150억원, 판매량은 9% 증가한 470만대로 집계됐다.

특히, 연말 특수가 발생한 4/4분기에는 매출이 21% 늘어난 6620억원을 기록하며 2005년 4/4분기 이후 처음 분기흑자를 실현했다.

삼성SDI는 2010년 사업전망에 대해 “윈도우 7 출시효과와 넷북 및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으로 노트북 PC 및 휴대폰 수요가 각각 19%, 10% 가량 늘어나면서 전지수요가 늘고 리튬이온2차전지 수요도 13% 증가한 30억 셀을 기록할 것”으로 내다봤다.

PDP 역시 대형제품과 중국 등 성장시장을 중심으로 TV 수요가 늘면서 모듈시장도 8% 성장한 155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1/26>